

CELLO SOLO PIECES
OF THE 20TH CENTURY

JEEHYUNG MOON

AUDIOGUY

CELLO SOLO PIECES OF THE 20TH CENTURY

JEEHYUNG MOON

Producer / Balance Engineer

Jung-Hoon Choi

Assistant Engineer

Sung-Bum Park

Recorded & Mastered at Audioguy Studio, Seoul

Microphone: Neumann USM69i(MS)

Recording Format: DXD

Publisher

Hindemith: Schott Music GmbH & Co. KG

Crumb: Edition peters

Ligeti: Schott

Sollima: Casa Musicale Sonzogno

Kodaly: Masters Music Publications, Inc

Paul Hindemith (1895-1963) - Sonata for Cello Solo Op. 25, No.3 (1922)

01	<i>I. Lebhaft, sehr markiert</i>	01:39
02	<i>II. Mässig schnell, Gemächlich</i>	01:14
03	<i>III. Langsam</i>	03:46
04	<i>IV. Lebhaftes Viertel</i>	00:36
05	<i>V. Mässig schnell</i>	01:55

George Crumb (1929-) - Sonata for Cello Solo (1955)

06	<i>I. Fantasia</i>	03:08
07	<i>II. Tema pastoral con variazioni</i>	03:59
08	<i>III. Toccata</i>	02:15

Geörgy Ligeti (1923-2006) - Sonata for Cello Solo (1948-53)

09	<i>I. Dialogo</i>	03:36
10	<i>II. Capriccio</i>	03:55

11	Giovanni Sollima (1962-) - "Alone" for Cello Solo (1998)	05:50
-----------	--	--------------

Zoltan Kodaly (1882-1967) - Sonata in B minor for Cello Solo, Op. 8 (1915)

12	<i>I. Allegro maestoso ma appassionato</i>	06:45
13	<i>II. Adagio</i>	10:00
14	<i>III. Allegro molto vivace</i>	10:21

Total : 59:16

Paul Hindemith (1895-1963)

Sonata for Cello Solo Op. 25, No.3 (1922)

독일 작곡가이자 비올리스트, 바이올리니스트였던 Hindemith는 독일을 대표하는 현대 작곡가로 다작을 하였으며 그의 첼로 솔로 소나타는 어두운 색채를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이 곡은 작품 25번의 4개의 비올라 곡들과 함께 작곡된 첼로 곡으로 리드믹한 빠른 악장인 1악장은 힘차게 진행되고 섬세한 리듬의 표현을 요구한다. 2악장은 전체 악장이 작은 악상으로 연주되며 유머러스한 작곡가의 센스가 있고 가운데 악장인 3악장 Langsam은 서정적이고 첼로로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멜로디를 표현한다. 4악장은 악상을 크게 하지 않으면서도 내면의 열정을 표현한다. 다이내믹한 마지막 5악장은 엄격한 박자 안에서로우 포지션과 하이 포지션을 넘나들며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화려한 방식으로 풀어낸다.

George Crumb (1929-)

Sonata for Cello Solo (1955)

미국 작곡가 George Crumb은 avant-garde 한 스타일과 실험정신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곡은 작곡가가 학생이었던 1955년에 Berlin에서 작곡되었고, 세 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악장 Fantasia는 삼부 형식의 곡으로 중간 부분의 넘치는 열정과 화려한 멜로디가 매력적인 악장이다. 2악장은 전원풍의 테마와 베리에이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정적이면서도 리드믹한 요소들을 조화롭게 가지고 있다. 3악장인 Toccata는 느린 도입부 이후 쏟아질 것 같은 빠른 음들의 연속이 열정적이고 드라마틱하게 전개된 뒤 1악장에서 따온 여러 모티브들이 곡에 통일성을 준다. 이 곡은 작곡가의 어머니 Vivian에게 헌정되었으며 초연은 Camilla Doppmann이라는 첼리스트에 의해 1957년에 연주되었고 출판은 1998년에 이루어졌다.

Geörgy Ligeti (1923-2006) **Sonata for Cello Solo (1948-53)**

György Ligeti (1923-2006)는 헝가리의 작곡가로 1948년 그가 아직 학생일 때 1악장인 Dialogo를 작곡하게 된다. 첼로를 공부하는 Annuss Virány라는 여학생을 짝사랑하며 쓰인 곡으로 1953년에 Vera Dénes라는 첼리스트가 Ligeti에게 첼로 곡을 부탁하자 2악장인 Capriccio로 작곡하여 두 개 악장의 첼로 솔로 소나타가 완성되었다. 하지만 공산당의 작곡가 연합은 이 곡의 출판과 연주를 금지하였고 초연은 1983년에, 출판은 1990년에야 이루어졌다. 이 곡은 작곡가 자신이 Béla Bartók과 Zoltán Kodály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밝혔듯이 헝가리 전통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1악장 Dialogo는 제독에서 보듯이 두 가지 선율이 대화하듯 발전하며 진행된다. 작곡가는 G선과 C선에서 각각의 선율이 대화하듯 진행된다고 얘기한 바 있다. 중간중간의 Pizzicato는 주위를 환기시키며 대화의 발전을 돕는다. 2악장 Capriccio는 소나타형식으로 쓰인 화려한 Virtuoso 악장이다. 끊이지 않는 3/8 패턴은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만들며 중간의 Dialogo를 회상하는 부분에서 잠깐 숨을 돌릴 수 있다. 1악장을 Kodály에게서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면 2악장은 Bartók의 특징이 많이 보이며 Paganini의 Caprice에 비견될만한 화려한 Capriccio이다.

Giovanni Sollima (1962-) **"Alone" for Cello Solo (1998)**

작곡가 Sollima는 이탈리아 Palermo에서 1962년 태어났다. 그는 첼로를 Antonio Janigro와 공부하고 작곡을 Milko Kelemen과 공부하였는데 Sollima의 작품 중에는 그래서 첼로를 위한 곡이 많다. "Alone"은 1999년 Caruana 국제 첼로 콩쿠르를 위해 쓰인 곡으로 테크닉이나 표현의 연구와 연습을 요구하는 곡이라 할 수 있다. Sollima의 작품들은 'minimalism'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평가받는데 이 곡에서도 짧은 주제나 멜로디가 계속 반복되고 그 반복으로 인해 발전하는 특징을 볼 수 있다. 느린 Adagio에서는 D 개방 현이 계속 연주되고 왼손 피치카토가 연주되는데 곡에 화려함을 더해준다. Allegro 부분은 빠른 16분 음표가 쉬지 않고 연주되며 빠른 중에도 다양한 악상과 sul ponticello 등의 기교가 연주된다. 이 곡의 작곡가인 Sollima는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첼리스트이자 작곡가이고 이 곡은 1998년에 Palermo에서 작곡되었다. 연주시간은 약 6분이다.

Zoltan Kodaly (1882-1967)

Sonata in B minor for Cello Solo, Op. 8 (1915)

헝가리 작곡가 Kodaly의 첼로 솔로 소나타는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첼로 솔로 곡들 중 하나이다. 이 곡은 1915년에 작곡되었는데 B minor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아래 두 현을 F# 과 B(원래는 G와 C)로 조율하여 연주한다. 코다이의 새로운 화성과 실험정신이 돋보이는 곡이지만 세 악장으로 구성된 이 곡은 소나타의 전통적인 형식에 의해 작곡되기도 하였다. 특히 Scordatura (조율을 달리하는 것)의 효과는 음색뿐만 아니라 코드나 첼로 음계 전반의 경계를 허물며 탁월한 음악을 선사한다. 이 곡의 premiere는 Jen Kerpely라는 첼리스트에 의해 Budapest에서 1918년 5월 7일에 이루어졌고, 출판은 비엔나의 Universal Edition에서 1921년에 이루어졌다. 테크닉적으로 화려하고 실험적이며 헝가리 민속음악의 영향도 많이 받은 이 곡은 현재 첼리스트들의 중요한 레퍼토리로 주목받고 있다.

현대음악이라는 이름의 소리

최정훈

중세에서 바로크를 지나 고전 낭만에 이르기까지 서양음악에서도 음악적인 기법들과 함께 악기들의 모습도 변해져왔습니다. 초기에 교회와 궁정에서 연주되던 음악들이 대중들과 함께 하면서 악기는 더욱더 크고 멀리 소리 낼 수 있도록 바뀌어 왔지요. 과거의 음악들을 현대 악기로 연주하는 것, 그리고 또 현대의 음악들을 과거의 악기로 연주를 하는 것 모두 흥미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가까이 있는 20세기의 작곡가들은 악기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본인들이 작곡한 곡을 어떠한 악기로 어떻게 소리를 전달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20세기 음악에서는 악기가 낼 수 있는 다양하고도 많은 부분의 음표들을 "소리"로써 변환합니다. 이번 음반에서도 마렝마레의 두 대의 비올라다감바 연주곡과 같은 느낌에서부터 영화 사운드트랙 같은 다양한 음악과 음향을 들을 수 있지만 그것이 마치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첼로 독주곡 연주된 이번 20세기의 음악은 오디오가이 스튜디오 안에서 들리는 실제 귀로 들리는 소리와 거의 같은 소리로 녹음되어있습니다. 보통의 음악 제작 과정에서는 녹음 후 악기 소리에 이퀄라이저로 고역을 들어 올리거나, 컴프레서로 소리를 압축하여 음악의 다이내믹스를 줄이거나, 혹은 디지털 리버브를 통해서 울림을 더하여 듣기 좋은 것처럼 만듭니다. 이 음반에서는 이러한 작업들이 전혀 사용이 되지 않아 일반적인 첼로의 레코딩보다는 고역의 소리가 차분하게 어찌면 심심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입니다.

많은 첼로 음반의 레코딩들에서 첼로의 음색이 점점 더 비올라나 바이올린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첼로는 콘트라베이스처럼 낮은 저음도, 바이올린처럼 높은 고역도 아닌 지금과 같은 인간의 목소리에 가까운 중음의 악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첼로로 연주하는 음악은 우리 귀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감정도 큰 영향을 줍니다. 이 음반의 프로덕션에서도 이퀄라이저로 초고역을 밝게 만들었다면 컴퓨터 스피커 등으로 재생 시에는 한결 첼로 소리가 화려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악기 소리와 같은 일정 이상의 큰 볼륨에서는 고역이 지나치게 강해져서 악기 소리가 부자연스럽게 들리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연주되는 공간의 자연스러운 울림은 연주를 작게 할 때의 울림의 음색과 길이, 그리고 연주를 크게 할 때의 울림의 음색과 길이가 모두 다 다릅니다. 반면에 디지털 리버브를 더한 울림에서는 악기를 작게 연주하든, 크게 연주하든, 울림의 길이와 음색이 같아 음악이 단조롭게 들리게 됩니다. 첼로의 소리에 따라서 함께 춤을 추듯 움직이는 공간의 잔향 역시 이 음반의 음악의 일부분으로 소리의 시작과 끝 그리고 사라지는 여음을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The sound of the name by modern music

From the middle Ages to Baroque to Classical Romantic, Western music has changed the look of musical instruments as well as musical technique. In the early days, the music played in the church and the court became popular to public and as a result, instruments have been changed to sound bigger and farther. It is both interesting to play the music of the past with modern instruments and to play the modern music with the past instruments.

But the 20th century composers, who are close to us, comprehe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nstrument and know how to deliver their musical composition with instruments. In the 20th century music, many different parts of musical notes can be converted into "sound". From this album, you can listen to a variety of music and sounds like Marin Marais's two viola da gamba, instrumental music to movie soundtracks, but it's as natural as if it has just one theme.

This 20th century music played with cello solo is recorded in almost the same sound as the real ear listening in the studio. In most music production process, people often boost the high frequency of the instrument by equalizer, reduce the dynamics of music by compressor, or add resonance through the digital reverb to make it sound better.

Since these works are not used at all on this album, the sound of the high frequency may be calm and perhaps sounds flat rather than the ordinary cello recorded sound. In many recordings of the cello, the sound of cello is becoming more like violas and violins. However, the cello can be defined as midrange musical instrument close to the human voice which is not too low like a contrabass, nor too high like a violin.

That's why the music we play with cellos is more sensitive to our ears and has a big impact on our emotions. If we make the high-end bright with the equalizer in the production of this record, you might hear the sound of the cello more colorful when playing with computer speakers.

However, in large volumes above a certain level, such as real instrument sound, the high frequency becomes too strong. It could be the reason why the instrument sounds unnatural. Due to the tone and length of the sound are different in between playing instrument quietly and loudly, the natural sound of the space can be varied. On the other hand, using digital reverb can make the music flatten regardless you play loudly or not, because the length and tone of the sound are the same. The reverberation of the space that moves like dancing along with the cello is also a part of the music of this record, so please listen to the beginning and end of the sound and also the fading sound of reverb.

Jung-Hoon Choi / Bin Lee, Translation



Jeehyung Moon, Cello

문지형, 첼로

첼리스트 문지형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과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커리어를 쌓았다. 대한민국의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후 영국 런던의 왕립음악원 (Royal Academy of Music) 과 스위스 제네바 음악원(Conservatoire de Musique de Genève) 재학 당시 유럽의 여러 페스티벌에 참가하고 연주하며 세계 굴지의 음악가와 연주자들에게 인정받았으며 2004년에는 이탈리아 Verbania 지방에서 열리는 Francesco Forgione 국제 콩쿠르에 1위로 입상하였다. 미국 아이오와 대학 (The University of Iowa)에 재학 시에는 아이오와 주의 여러 오케스트라의 수석과 단원으로 활약하였고 아이오와 대학에서 박사학위 (Doctor of Musical Arts)를 취득한 후에는 주로 대한민국 서울에서 오케스트라, 실내악, 독주 등의 연주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